“전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추징금 끝까지 환수” 한목소리

전우원씨 폭로로 관심 끈 전두환 추징금…추가 징수 가능할까

2205억 중 922억 미납…전두환 사후 오산시 임야 등 6건 33억 추가환수
50억 추가 징수 가능해도 전씨 며느리 소유 연희동 별채 등 집행 어려워
‘추징 3법’ 국회 통과로 전씨 아들 와이너리 등 은닉재산 밝혀 징수해야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의 ‘전씨 일가의 호화생활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씨의 미환수 추징금 규모와 추징 가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씨 일가의 호의호식과 비자금 은닉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전두환 추징 3법’을 통해 남은 추징금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광주일보가 확보한 자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검찰 등은 과거 전두환씨가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282여억원을 환수했다.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22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여억원은 추가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씨 사망이후에도 오산시 임야 공매 대금 등 33여억원을 환수했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전씨 사망으로 추가적인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선고한 이후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씨 생전에 진행된 공매나 경매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산시 임야 3필지도 공매 배분절차만 남아 50억여원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미납 추징금 870여억원은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심을 끄는 전씨 며느리 소유 연희동 사저 별채의 경우 2022년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했지만, 전씨가 사망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작업은 1997년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1997년 전씨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에 대한 추징을 시작으로 2003년 비자금 추적을 통해 전씨 부인 이순자씨로부터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받았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 제정과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한 듯 장남 전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공매에 나온 주요 재산 목록도 화제가 됐다. 목록에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건물 179억7000만원, 서초동 시공사 건물 81억1000만원,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보석류 108점, 카르티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 그림 ‘물방울’ 1점 등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환수작업은 이어졌지만 추징금에 비해 환수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완납은 더디기만 하다.

2019년에는 전재국의 북플러스(도서 도매 유통업체) 비상장주식 20만4000주(전체 지분의 51%)를 공매해 25억3000만원을 추징했고 2021년에는 시공사 강제조정결정 이행금 등으로 13여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처럼 환수가 더딘 원인으로는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돼 저가에 매각 된 점 ▲매각대금에서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 체납세금이 우선 배분된 점,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등으로 공매가 정지된 상황에서 전씨가 사망해 추가 집행이 불가능 해 진 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최근 전우원씨가 ‘전두환씨 아들이 미국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손자녀의 거액 유학비용’, ‘각종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자산이 존재하고 제3자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등을 폭로하면서 전씨 일가의 추징금 완전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두환 추징 3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씨가 사망해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지만, 추징 3법을 통과시켜 법적 조건을 구비해서라도 끝까지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의 호위호식과 은닉재산의 드러난 만큼 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직도 학교장에 거수경례?

교육단체 “반인권 문화 청산” vs 학교측 “50년 진행된 전통”

광주 2개 고교 시행에 문제 제기
학교측은 학생회 논의 후 “고수”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 독재시절의 잔재로 알려진 ‘학생들의 거수 경례’가 광주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의 2개 고교에서 입학식 등 학교행사시 학교장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 반 인권적인 학교 문화 청산을 위한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 남구와 서구에 있는 이들 학교는 입학식과 졸업식 등 교내행사에서 학생들이 ‘이기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측의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학생에게 거수경례를 시키는 일은 학교에서 교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도 학생들에게 이런 관습을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거수 경례는 일제시대에 일본 왕에 충성을 바치는 의미 등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은 군대를 제외한 일상 속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시민모임은 “하나의 구호나 상징 아래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은 군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양성, 상호성에 기초해 존중하는 관계가 이뤄져야 할 교육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적에도 불구, 문제가 제기된 학교들은 당분간은 거수 경례를 고수할 계획이다.

거수 경례를 실시하고 있는 한 학교장은 “거수 경례는 50년간 진행된 우리 학교의 문화다. 일제 잔재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기자’(극기)라는 교훈을 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학생회에 안건을 붙였으나 대다수가 ‘괜찮다’는 입장이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봄맞이 대청소…몸도 마음도 가볍네 광주 동구청 직원들과 주민 자생단체 회원들이 2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 겨우내 쌓인 낙엽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같은 교회 다니던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남성 구속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종교시설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준강간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서구 소재 같은 교회를 다니는 30대 여성 B씨를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원룸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단순 추행만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선장 주의에도 음주 낚시객들…선장 신고로 적발

선상 낚시를 하다 선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승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여수시 거문도 남서쪽 1.6㎞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에 타고 낚시 중이던 있던 승객 3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배에는 선장과 사무장, 승객 18명 등 총 20명이 승선 중이었는데, 이 중 일행으로 추정되는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은 이들에게 “낚싯배에서 술 마시면 안된다”며 만류했는데도 개의치 않고 술을 마시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경은 여수시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경찰…시민 신고로 적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남부경찰은 28일 밤 9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월교차로 보행섬을 들이받은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월교차로 보행섬을 들이받았는데 뒤따르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4%가 나왔지만, A씨는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6735	1	서구 화운로94, 105동 23층 2304호 [화정동,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84.98㎡	아파트	667,000,000 667,000,000	2023타경93[중복]
2022타경7332	1	남구 고싸움로164번길22, 102동 6층 601호 [지석동,일진스위트포레] 84.8792㎡	아파트	339,000,000 339,000,000	
2022타경7998	1	서구 상무민주로5번길9, 10층 1011호 19.5438㎡	아파트	61,000,000 61,000,000	
2022타경74653	1	서구 풍암순환로70, 106동 11층 1104호 [풍암동,남양.현대아파트] 59.95㎡	아파트	185,000,000 185,000,000	
2022타경74813	1	나주시 한빛로61, 114동 11층 1101호 [빛가람동,빛가람우미린] 76.1881㎡	아파트	281,000,000 281,000,000	
2022타경75038	1	북구 문산로20, 101동 9층 908호 [문흥동,문흥상록아파트] 59.802㎡	아파트	154,000,000 154,000,000	
2022타경75687	1	광산구 송정로77, 102동 1206호 [송정동,금강아파트] 59.84㎡	아파트	138,000,000 138,000,000	
2022타경76208	1	동구 동계로9번길8, 3층 302호 84.98㎡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74295	1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529 382㎡	대	71,420,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6길 18-10 에이동호 83.70㎡ 제시외 단층창고 등 144.4㎡	단독주택	71,420,9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74554	1	나주시 영강길19, 2층 205호 [삼영동,삼영연립주택] 59.43㎡	다세대	26,200,000 26,2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72889	1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669-11 4000㎡ [공유자김종서1/6지분전부]	답	55,596,060 55,596,06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70-7 4000㎡ [공유자김종서1/6지분전부]	답		
		동소 670-8 4000㎡ [공유자김종서1/6지분전부]	답		
		동소 671-16 830㎡ [공유자김종서1/6지분전부]	답		
2022타경7240	1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산273 4364㎡	임야	25,747,600 25,747,6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22타경7509 2022타경71029 [중복]	2	화순군 동면 장동리 431 1652㎡ [공유자이정상2/11지분전부]	답	12,720,060 12,720,06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38 625㎡ [공유자이정상2/11지분전부][물건번호2:배당요구종기,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는선행사건[2022타경71029무잉여기각]을원용함]	답		
	3	화순군 동면 장동리 산88 23702㎡ [공유자이정상2/11지분전부.배당요구종기,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는선행사건[2022타경71029무잉여기각]을원용함]	임야	10,342,680 10,342,68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지상자생중인소나무등기타잡목매각포함.맹지
2022타경73803	1	북구 동림동 220-1 2235㎡ [지상이동가능한타인소유컨테이너소재]	전	1,913,160,000 1,913,1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북구 동림동 227 1562㎡ [지상타인소유제시외건물[주택,가추,창고및화장실,창고,쉼터]매각제외.지상타인소유수목[감나무,매실나무,동백나무,배롱나무등]매각제외.향후현황변경에대한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	전	1,383,932,000 1,383,932,000	공부상지목"전"이나,현황"전및일부주거용건부지,도로".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북구 동림동 230 255㎡	전	196,350,000 196,3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북구 동림동 231 688㎡ [식재된수목[감나무,배나무,사과나무등]일괄매각]	전	530,220,000 530,2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74295	2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529-4 163㎡ [갑구2번공유자박유순지분28/66및공유자홍봉지분27/66각전부]	전	13,070,630 13,070,630	일괄매각.지분매각,갑구6번공유자홍봉지분11/66매각대상에서제외.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
		동소 529-5 361㎡ [갑구2번공유자박유순지분28/66및공유자홍봉지분27/66각전부.부동산지상물탱크,비닐하우스소재]	전		
	3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530 1002㎡	전	33,066,000 33,06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
2022타경75502	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63-1 13㎡ [인접지1356-6번지지상건물주차장으로사용중]	대	4,277,000 4,277,000	인접지와경계불명
	2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65-3 80㎡ [공유자변영석178/552지분전부]	대	28,079,160 28,079,16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목록2,3토지대부분을사건외인접지소재건물이침범.경계구분불명하여측량요
		동소 1365-11 69㎡ [공유자변영석178/552지분전부]	대		
		동소 1365-12 44㎡ [공유자변영석178/552지분전부.지상타인소유건물[1368-3외1필지주택]소재]	대		
		동소 1365-13 51㎡ [공유자변영석178/552지분전부]	대		
	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71-7 52㎡ [토지일부인접지건물[창고용컨테이너]이침범]	대	20,280,000 20,28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4. 13.[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4. 20.[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민석